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10월 3일(화) 총 3매		
담당 부서	인구가족과	담 당 자	• 가족지원팀장 김재호 ☎ 440-2871 • 담당자 한예지 ☎ 440-2875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

- 10월부터, 24시간 상담 및 출산·양육 맞춤형 지원 -
- 체계적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굴 및 보호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10월부터 소득 기준,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·출산·양육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.

최근 출생 미신고·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,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해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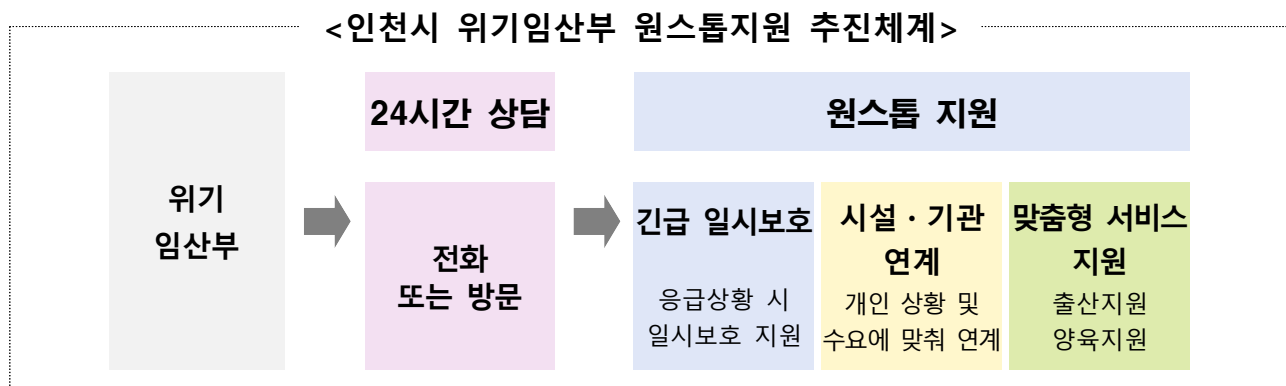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 임신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,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신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,267명이다. 그 중 1,148명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지만, 1,119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.

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,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위기가구의 출산·양육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지만, 다양한 사업이 분산돼 있어 통합지원이 어렵고 지원대상자가 임신·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.

때문에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임신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, 미혼·기혼 여부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‘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’을 시행하기로 했다.

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‘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’를 운영할 계획이다. 센터 운영은 미혼모의 출산과 주거를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천의 유일한 출산지원시설(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)인 인천자모원에서 맡는다.

센터는 ▲24시간 상담(032-772-2071)부터 ▲긴급 일시보호 ▲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아동복지센터 등 시설·기관 연계 ▲출산·양육 지원 등 위기 임신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.



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 또는 원스톱지원센터 방문(인천 자모원)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.

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출산과 비출산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면서 “앞으로 원스톱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위기 임산부 원스톱 지원 카드뉴스

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

지원 대상
미성년, 이혼·사별, 미혼 등 임신·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**모든 위기임산부**

지원 내용
24시간 상담
전담인력 상주/ 전화 및 내방을 통한 온·오프라인 상담/ 익명상담 가능
긴급상황 시 일시보호
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(인천자모원)/ 일시주거지원
개인별 맞춤형 시설·서비스 연계
출산·의료비 지원/ 시설·기관 연계/ 서비스·정책 연계

신청 방법
상담전화 : **032-772-2071**
원스톱지원센터 방문
(인천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-2, 인천자모원)

인천광역시